

# 완도군 다시마 수확철 베트남 일손 들어온다

전남지역서 고흥군 이어 두번째 '계절 근로자제' 도입  
내년 5~7월 단기비자 50명 입국시켜 일손부족 해결

다시마는 완도 생일·금일·약산 주민들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주민들에게 물으로 자식들을 내보내는 밀전도 다시마였다. 자신들은 섬에 태를 낚으면서도 자식들을 물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해 두집·세집 살림 전셋돈을 마련했다.

매년 5월부터 이들 섬 곳곳은 다시마 건조장으로 변한다.

다시마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해가 쨍한 날 골라 말렸고 비 오면 들어놓았다. 기계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다에 붙은 이물질도 수습차에 걸쳐 닦아 내야 한다. '한

해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마'라고 해서 '다시마'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매년 다시마를 말리는 5~7월, 완도 어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옷돈을 쥐도 농촌 고령화로 젊은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완도군이 지역민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시기에 데려와 활용하기 위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유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군의회에 제출돼 통과됐다.

동의안은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완도군은 동의안을 계기로 베트남(트어 티엔 후에성)과 미역, 다시마, 전복 양식 및 가공업과 어선업 분야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제는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로, 농·어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에서는 고흥에 이어 두번째로, 군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간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게 완도군 설명

이다.

군은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다시마 건조기 때 25~50세 가량의 베트남 계절 근로자 50여명을 데려와 어민들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어가에서는 한 달 150만원(주 1회 휴일 제공)의 급여와 숙박, 항공료 등을 부담해 고용할 수 있으며 매년 다시마 건조 시기,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군은 내년 시범 시행 뒤 어떤 반응을 반영, 장기 근로나 인력 수급 규모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1700여명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 7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미술공연 '월드매직쇼'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 <해남군 제공>

## 해남문화회관 다채로운 공연 매진 행렬

해남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콘서트, 뮤지컬, 발레갈라쇼, 음악회 등 매일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서관음악회에 이어 날라리콘서트,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등 공연이 무대에 올랐고 이달에도 매직월드쇼 공연이 펼쳐졌다.

수준높은 공연이 잇따르면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해남 군민 뿐 아니라 강진, 완도, 진도, 장흥 등에서도 찾아올 정도다.

지난 7일 미술공연을 보려는 관람객들로 문화예술회관 앞은 오전부터 긴 줄이 생겼고 700석의 공연 티켓은 예매를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매진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수한 공연들을 지역 무대에 잇따라 올려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핵심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02년 완공, 올해로 개관 14년째로 공연장, 도서관, 문화의집, 생활체육시설 등을 해남 군민 뿐 아니라 강진, 완도, 진도, 장흥 등에서도 찾아올 정도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 울돌목 해상에 950m 케이블카

郡. 조성사업 허가...300억 들여 2019년까지 설치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현장인 진도 울돌목과 해남 우수영을 공중에서 관광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조감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는 '녹진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가 나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최근 민간사업자인 ㈜울돌목이 제출한 '녹진관광지 내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허가신청서'를 허가,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측은 300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대 22만

7299㎡ 규모의 녹진관광지에 진도~해남을 잇는 950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자측은 해남우수영~진도타워를 연결하는 노선에 8인승 곤돌라 26대를 투입하고 진도타워에서 승전무대까지 200m 구간에 12인승 그립형 곤돌라 4대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진도군은 울돌목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명량대첩지인 울돌목을 공중에서 즐길 수 있는 점 등으로 서남권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진도군 내년 국비예산 1186억원 확보

진도군은 내년 국비 예산으로 1186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소재지 종합개발(28억원) ▲모도해안산책로 조성사업(14억) ▲수산물 산지가공사사업(20억) ▲명량대첩지 관광자원화(13억) ▲신기지구 마을 조성사업(11억원) 등이 꼽힌다.

또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도시종합개발사업(107억원) ▲국도 18호선 확포장 공사(87억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53억원) ▲장구포 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11억원) 등에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공모사업에는 ▲공공서비스주택(125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50억원) ▲여미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32억원) ▲조도속 향토산업육성사업(30억원) 등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유임이나 세번째 대행체제나 ... 해남군수 권한대행 거취 주목

해남군수 공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면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이달 말 시기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전까지 임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새로운 군수 권한대행이 부임할 경우 책임있는 군정 임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유영걸 부군수 유임 여론  
군의회도 전남도에 요청

임무를 파악하는데도 부족한 시기인데다, 선거 뒤 교체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군수 대신, 1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인

사·공사계약 등 갈급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준 현 군수 권한대행에 대한 군정 내부의 우호적 분위기와 신뢰감이 깔려 있다. 올해 165건의 신규시책을 발굴, 14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내는 가 하면, 공모사업으로 19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된 점, 순례문화관 개관,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에서 보여준 결단력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남군의회도 이례적으로 지난 4일 군의회 의장 등이 전남도를 찾아 유 부군수

의 유임을 공식 요청했다.

유 부군수 전에 임무를 봤던 양재승 부군수가 공로연수까지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회와 지역사회가 원한다며 스스로 전남도의 교체 요구를 거부했던 전례를 들어 유임을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유 부군수까지 교체되면 3명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져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유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AI 확산 우려...해남 공룡화석지 조류생태관 잠정폐쇄

해남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우려해 공룡화석지 내 조류생태관(사진)을 잠정 폐쇄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관광지원과 사업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황산면 공룡화석지 내 운영중인 조류생태관과 체험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조류생태관에는 붉은이마앵무 등 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사업소측은 "생태관 내 사육 조류들의 AI 감염을 막고 먹이주기 체계를 위해 체험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AI 종식까지 잠정 폐쇄한다"고 설명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은 앞서 땅끝마을에서 열거로 했던 해남·해맞이 축제를 취소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투자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금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